

'철도 요금, 인상 시동건다'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.

< 보도 내용 (한국일보, 8.13) >

◆ '13년 동결된 철도 요금'... 국토부, 운임 인상 로드맵 마련한다

- 철도 유형별 '적정 운임' 산출 및 로드맵 수립 용역 발주, 코레일 운임이 13년간 동결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'운임 인상 로드맵'이나 마찬가지
- 코레일은 올해 들어 KTX 요금 10% 이상 인상을 국토부에 지속 요구

□ 국토교통부가 8월 12일 입찰공고한 연구용역*은 **준고속철도(200km/h 이상, 300km/h 미만)의 투자방식 개선 여건을 검토하기 위한 것**입니다.

* (용역명) 철도 투자방식에 따른 여객 운임 및 시설사용료 영향 분석,
(용역기간) 10개월, (용역금액) 1억원

- 현재 고속철도는 국가와 철도공단간의 분담으로 건설하고 있고, 일반 철도(준고속 포함)는 국고 100%로 건설하고 있는 상황으로,
- 준고속철도도 고속철도와 같이 국가와 철도공단이 분담하는 방식의 적용 가능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재정여건 및 철도운영자·시설관리자의 재무여건, 철도산업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철도 투자체계 개선방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	책임자	과 장	강 욱 (044-201-3970)
		담당자	서기관	김병채 (044-201-4636)